惡人 제바달다도 수기 받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④ 수기 주는 희망의 경전

〈법화경〉은 경문의 구성이 다른 경전과 다른 점이 있다. 모든 법문이 이중적으로 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문체의 서술이 끝나면 반드시 운문체의 응송(應頌(祇夜, geya)이 이어진다. 이는 〈화엄경〉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또 부처님 명호가 나올 때마다 여래 십호의 명호를 나란히 붙여 쓰고 있다.

〈법화경〉 각 품의 내용상 특이한 점은 우선 수기(授記)를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제6 수기품과 제8 오백제자수기품, 그리고 제9 수학. 무학인기품 등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어 성불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가히 〈법화경〉은 '수기경' 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성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섭을 비롯하여 수보리, 가전연, 목련이 수기를 받고 아난과 라후라, 교담미, 야수다라 등도 수기를 받았으며, 교진여 등 오백제자와 유학 무학 2천 명이 수기를 받았다.

본래 수기는 범어 비야카라나(vyakarana, 毘耶佉梨那)를 번역한 말인데 애초에는 교리를 분석 해설한다는 뜻이었다가 중간에는 제자가 증득한 경지 또는 사후에 태어날 곳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가 후대에 와서 성불한 뒤 얻을 명호를 예언하는 의미로 쓰였다.

제12 제바달다품에는 역사적으로 부처님 시해를 기도했던 제바달다가 과거생에는 석가모니의 스승이었다는 말을 하며 제바달다에게도 수기를 준다. 부처님이 제바달다와의 과거세의 인연을 말한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 법화의 가르침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국왕이 되어 원을 일으켜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남이 없었느니라. 여섯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고자 한 까닭으로 보시를 할 적에 코끼리, 말, 칠보, 도성, 처자, 하인은 말할 것 없고, 머리, 눈, 골수, 몸, 살, 손발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위해 왕위를 버려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언하고 사방에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해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죽을 때까지 섬기어 시중을 들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아사타(阿私陀)라는 한 선인이 와서 말했다. '저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만약 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설해드리오리이다' 고 하였느니라. 왕이 선인의 이 말 듣고 뛸 듯이 기뻐하여, 곧 선인을 따라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시중을 드는데, 과일을 따고 물을 길어오고 땔나무와 음식을 만들며 심지어 몸으로 평상이 되기도 했지만 몸도 마음도 고달픔을 몰랐다.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 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하여 부지런히 시중들어 모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은 나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였느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육바라밀과 자(慈), 비(悲), 희(喜), 사(捨)와 삼십이상과 팔십종호와 붉은 금빛의 색과 열 가지 힘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것과 네 가지 포섭하는 법과 열여덟 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힘, 신통력과 도력을 갖춰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이제 여러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미래에 한량없는 겁을 지나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천왕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고 세계 이름은 천도라고 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 장면은 〈법화경〉의 극적인 장면 중 하나다. 과거세의 인연을 들어 악인으로 알려진 제바달다가 〈법화경〉을 설해준 스승이었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스스로 惡 않겠다는 '결심'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④ 삼귀의와 오계

불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귀의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僧伽)에 귀의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삼귀의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불자라면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삼귀의를 삼귀의계(三歸依戒) 또는 삼귀계(三歸戒)라고도 하지만, 삼귀의가 계로 정해진 것은 일본불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조동종(曹洞宗)의 도원(道元) 선사가 십육조계(十六條戒)의 보살계(菩薩戒)를 정했는데, 이것은 삼귀계(三歸戒)와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십중계(十重戒)를 합한 것이다. 삼귀의는 계라기보다는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종교적 맹세라고 할 수 있다.

삼귀의는 불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며, 오계(五戒)를 받아서 실천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극한 신심으로 삼보에 귀의해야만 비로소 오계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증지부경전(增支部經典)〉에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僧伽)에 귀의한 사람' 을 우바새(優婆塞)라고 하며, 오계를 받으면 구계(具戒)의 우바새라고 설한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삼보에 귀의한 사람' 이 우바새이며,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婬), 망어(妄語), 음주(飮酒)를 떠난 사람' 이 구계(具戒)의 우바새라고 설한다.

오계는 다섯 가지 계, 즉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婬),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이다. 표면적으로는 다섯 가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는 타율적인 금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타인의 명령으로 악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악을 멈출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생물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임을 깨닫고 살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훔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불사음계(不邪婬戒)는 사음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부부 이외의 부정한 성관계인 사음(邪婬)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네 번째의 불망어계(不妄語戒)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의 불음주계(不飮酒戒)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이며, 이는 곡물로 만든 술, 과일로 만든 술, 알코올 성분이 있어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오계 가운데 불음주계를 제외한 네 가지 계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중시되었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부처님께서 선생장자(善生長子)에게 살생, 투도, 사음,망어를 네 가지 '결업(結業)' 이라고 설한다. 아울러 이들 악업을 떠나게 될 때 현세에서는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고, 목숨을 다한 내세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난다고 설한다. 또 재산을 탕진시키는 첫 번째 행위로 음주에 탐닉하는 것을 들고 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술에 탐닉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설할 뿐만 아니라 음주를 자제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에서 불음주계를 첨가시킨 것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는 나태와 게으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음주에 탐닉하는 것은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아가 술에 취하면 자제심을 잃어 악행을 저지르기 쉽게 되며, 과음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다시 말해 음주는 복을 깎아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④ 나체 수행자

한 조각 옷마저 거부한 고행

기원전후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나 기독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은 당시 인도의 고행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들이 '사문' 이라고 불렀던 종교수행자들의 모습은 나체의 모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무껍질로 옷을 하거나 풀과 열매 또는 나무뿌리로 연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도 사문은 영적인 순수함에 다가가기 위해 옷과 음식을 멀리하는 수행자였다. 이들이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리스에는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의 기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행정관으로 파견되었던 메가스테네스는 동인도의 파탈리푸트라까지 여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그리스인들의 여행기를 통해 서양에도 기원전 3~4세기경의 인도 고행자들의 모습이 알려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간다라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러한 나체 고행자가 적지 않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칼라노스(Kalanos)라는 나체 고행자는 알렉산더 일행을 따라 탁실라에서 페르시아로 건너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거기서 병이 걸리자 스스로 불을 피워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과연 당시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인도 나체 고행자들은 어떤 종교의 고행자였을까. 브라만 고행자들이었을까, 아니면 불교의 고행자들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수행자였을까.

기원전 3~4세기경 그리스인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석가모니 당시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행자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출가수행자 그룹을 통칭하여 우리는 사문(沙門)이라고 부른다. 당시의 불교 수행자들도 이 사문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으며, 자이나(Jaina)교도 마찬가지다. 이 출가수행자 그룹 가운데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고행하며 떠돌아다니던 나체 수행자들도 있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이나교와 아지비카(Ajīvaka)교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불교는 이러한 나체 수행을 허용한 적이 없다. 아마도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탁실라의 나체 수행자들은 불교 수행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지역으로 볼 때 아직 불교나 자이나교는 알렉산더 당시의 탁실라 지역에 흥성했을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그 나체 고행자는 브라만 고행자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브라만교에서는 방랑 수행자나 출가 고행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오해다. 물론 브라만들은 고대 힌두사회 속에서 제사를 지내주던 사제의 역할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사제로서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때때로 다른 사문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고행자의 길을 걸었던 전통이 존재한다. 바라문들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홀로 은둔의 생활을 택하여 제사를 위한 불을 피우지 않고 산다는 말이다. 따라서 브라만교를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사문의 종교와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뿐이다.

브라만교는 출가하여 고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의례적 절차까지 마련해 두었으며, 고행의 단계에 따라 고행자의 경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그 출가의식의 마지막 단계는 옷을 벗고 나체의 몸이 되는 절차가 있다. 출가의식을 집행하는 브라만은 출가인에게 옷을 벗어 나체로 북쪽으로 걸어나아가도록 한 다음, 다시 불러 고행자의 복장을 갖춰준다. 즉 탁발을 위한 발우와 지팡이, 그리고 물병 등이 그것이다. 고행자의 행색은 그가 수행과 고행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달라진다. 최고의 고행자 단계를 빠라마항사(가장 높이 나는 거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길렀던 상투머리를 잘라내고 평생 어깨와 가슴에 드리웠던 바라문의 상징인 성사(聖絲)도 잘라낸다. 고행을 시작하며 주어졌던 발우도 던져버리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거나 동물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다. 그리고 지팡이와 물병도 버리고 몸에 걸쳤던 한 조각의 옷가지마저 벗어던진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완전한 나체로 숲을 떠돌며 고행을 이어나간다. 고행자라는 세상의 어떤 표식도 갖지 않은 채 동물과 같은 삶을 이어나간다. 불전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필시 석가모니는 당시의 이러한 나체 고행자들과 수시로 조우하며 함께 법을 논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